

중도입국 학교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최은희^{1*}, 김경은²

¹충북연구원 연구위원, ²드림청소년발달연구소 소장

Exploration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of Immigrant School-Adolescents

Eun-Hee Choi^{1*}, Kyung-Eun Kim²

¹Research fellow, Chungbuk Research Institute, ²Director, Dream Youth Development Institute

요 약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우울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가족요인, 학교요인, 다문화요인으로 구성하여 학교급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한 자료는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집단간 차이분석, 교차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초등학생의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교폭력경험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우울에는 다문화가족정체성이, 고등학생은 학교공부어려움이 영향을 미쳤다. 둘째, 모든 집단에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은 사회적 차별경험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연령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사회적 차별경험은 우울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우선적으로 학교환경에서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제어 : 중도입국 학교청소년, 우울, 학교폭력, 사회적 차별, 부모관계, 한국어수준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influencing factors on the depression of immigrant school-adolescents. It made use of family factors, school factors, and multi-cultural factors to verify the influencing variables of depression in school grade. Data were drawn from the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2015 and analyzed t-test and chi square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y using SPSS Win 21.0. First, school violence experience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on the affecting depression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Multi-cultural family identity was the main cause of depress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and school study difficulty in high school students. Second, major variables on the affecting depression in all groups were identified as social discrimination experience. These results implied the differentiated support by ages was asked for the stable settlement of adolescents. Experience of social discrimination was a common factor raising the level of depression in all groups. Therefore, we should be done active intervention in school environment.

Key Words : Immigrant School-Adolescents, Depression, School violence, Social discrimination, Parent relationship, Korean level

1. 서론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로 이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1]는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1,764,664명)은 총인구(51,269,554명)의 3.4%라고 발표하였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이 외국인 근로자 30.7%(541,673명)이며, 외국인주민 자녀는 2016년 전체 외국인주민의 10.8%(191,459명)이다. 이는 결혼이민자 9.0%(159,501명)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Corresponding Author : Choi, Eun Hee(ehchoi@cri.re.kr)

Received May 24, 2018

Accepted August 20, 2018

Revised June 29, 2018

Published August 28, 2018

Table 1. Status of Foreign Residents by Type(*16)

sum	Long-term stay foreigner						Naturalized person	A foreign resident's child (birth)
	Total	Foreign workers	married immigrant	foreign student	Foreign nationality	Other Foreigners		
1,764,664	1,413,758	541,673	159,501	95,963	235,926	380,695	159,447	191,459
	(80.1)	(30.7)	(9.0)	(5.4)	(13.4)	(21.6)	(9.0)	(10.8)

외국인주민 자녀는 국내 출생 자녀뿐 아니라 재혼인 결혼이민자의 국내 이주 자녀 등으로 다양한 유형이 있다. 특히 외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한 중도입국 청소년은 한국에 대한 특별한 준비 없이 부모와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방문동거비자, 여행비자 등으로 입국하여 체류신분이 불안정한 상태이다[2].

중도입국 청소년은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에 신체적, 심리적 발달이라는 다양한 과업과 함께 이주경험으로 인해 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는 일반 청소년 및 일반다문화가정 청소년과는 다른 발달 과제를 보일 수 있다. 특히 이들이 경험하는 가정은 양부, 양모, 동복(이복)형제 등의 구성으로 복잡한 가족관계를 갖고 있다. 학령기 즈음에는 한국으로 돌아와 국가간 이동과 동시에 학교라는 새로운 체도에 편입되게 되면서 한국어 능력과 학교생활적응, 친구관계, 정체성문제, 심리사회적 적응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즉 안정적인 정착을 저해하는 요인이 다양하다.

이러한 문제는 향후 다양한 사회활동에 온전한 참여를 방해하는 사회적 배제의 조건이 될 수 있어 정부는 2009년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한국어교육, 특기적성교육, 사회문화체험 등)을 개발하였고, 2011년 이후 전국 23개소에서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12년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개정하여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9-25세의 다문화가족청소년,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습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한 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어서 2013년 교육부는 중도입국 자녀의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고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다문화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편입학의 전 과정을 지원하도록 제도화하였다. 또한 다문화학력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다문화 예비학교 및 다문화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등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학술영역에서의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전개되지는 않았다.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2010년 이후 질적연구[3-5]로 시작하여 실태조사[6,7]와 함께 사회문화적응[8], 지원방안[2,9], 언어능력, 진로, 학교생활적응, 학업성취[10,11]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정신건강, 특히 청소년의 발달에서 간과할 수 없는 우울에 관한 연구는 일반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중도입국 청소년을 비교한 오승환과 좌현숙[12]의 것이 유일하다. 따라서 현재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인권, 노동, 정신건강 등 다양한 주제로 연구지평을 넓혀야 할 숙제를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연구지형에 기반 하여 청소년 정신건강관련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동안 수행된 중도입국 청소년에 관한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만을 대상[11,13]으로 하거나 다문화청소년에 중도입국 청소년을 포함[14,15]한 연구, 중도입국 청소년과 다문화청소년을 비교한 연구[12]가 있을 뿐 학년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지는 않았다. 즉 초, 중, 고등학생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지 못한 점이다. 일반청소년들은 학년에 따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요인이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으나[19],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에는 어떠한지 밝혀진 연구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학년에 따라 우울의 원인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적응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 연령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이해하는데 시사점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학교에 재학 중인 중도입국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족요인, 학교요인, 다문화요인으로 구분하여 탐색하고자한다. 이를 통해 중도입국 학교청소년의 우울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변인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중도입국 학교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요인, 학교요인, 다문화요인은 학교급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이론적 배경

2.1 중도입국 청소년 현황

중도입국 청소년은 모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다가 한국으로 입국한 청소년으로 청소년 본인이 이주배경을 가진 경우를 의미한다[13]. 중도입국 청소년 발생 경위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부모 중 한사람이 결혼이민자로 한국인과 재혼하여 본국의 자식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유형 둘째, 이주노동자들의 자녀로서 부모가 한국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한 뒤 본국에 남겨놓은 자식을 데려오는 유형 셋째, 자식이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외국에서 거주하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이다[16].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파악하기 어려운 관계로 외국 거주기간이 한국보다 더 긴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중도입국 청소년으로 한정하였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17], 중도입국 청소년 중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2017년 7,792명으로 2012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생수는 감소한다.

Table 2. Immigrant school-adolescents of number

	interracial marriage home									
	Domestic birth					Foreign birth				
	sum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other schools	sum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other schools
17	89,314	68,610	12,265	8,335	104	7,792	4,843	1,722	1,063	164
16	79,134	59,970	11,475	7,589	100	7,418	4,577	1,624	1,075	142
15	68,099	50,191	11,054	6,688	166	6,261	3,965	1,389	723	184
14	57,498	41,546	10,316	5,562	74	5,602	3,262	1,386	750	204

2017년 국내출생 다문화 중학생수 대비 고등학생 비율은 68.0%이며, 중도입국 중학생 대비 고등학생 비율은 61.7%로 중도입국 고등학생의 비율이 6.3%p 낮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증가추세에 따라 이들의 출신국가 및 거주지역도 다양화되고 있다. 신현옥과 양계민[18]에 따르면 중국출신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몽골,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 출신 청소년들의 유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거주지역은 2010년 초까지는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 집중되었으나, 최근에는 제주, 충청, 전라 등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17-19세 연령대 청소년과 10세 이하 초등학생

저학년 연령대 아동의 비율이 중도입국 청소년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에 입국하는 청소년의 경우 한국에서 태어난 일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보다 성장과정에서 언어나 적응, 정체성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알려졌다.

2.2 중도입국 청소년의 우울

청소년기 우울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심리적 문제로 발달과제와 관련이 있다. 청소년기는 발달단계로 볼 때 시련의 시기이자 정서적 동요의 시기로 생애주기 중 우울을 경험할 확률이 가장 높으며, 특히 15-18세 청소년의 우울증 유병률은 가장 높다[19]. 청소년기 우울은 실제 임상적 우울을 가진 청소년 뿐 아니라 일반청소년도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감정으로, 단순히 사춘기 현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으나 자살과 죽음에 대한 지속적인 생각과 연관되어 적극적인 관심과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하다[20]. 청소년기 우울이 성인과 다른 것은 우울해질 때 울적한 기분을 느껴야 함에도 다른 증상들이 생겨 자신이 지금 우울한 것이 아니라 몸이 아프다고 생각하는 가면우울(감춰진 우울)이 나타나는 것이다[21].

다문화청소년은 부모의 서로 다른 문화로 인한 정체감 상실 등의 문화적 갈등에 대한 개인의 대처 능력을 초과할 때 우울, 불안과 같은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경험한다. 또한 언어, 외모, 한국사회의 낮은 다문화 인식으로 인해 일반청소년보다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사회적 차별을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우울에 취약하다[22].

일반청소년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경험률은 27.5%인 반면, 일반청소년들은 26.6%로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23]. 또한 오승환 외[12]의 연구에서는 일반다문화가정 청소년보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우울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반영할 때 우울은 일반청소년, 다문화청소년, 중도입국 청소년의 순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보다 한층 더 세밀하게 중도입국 학교청소년들의 학교급별 우울수준이 어떠한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2.3 중도입국 청소년의 우울에 관한 선행연구

2.3.1 가족요인과 우울: 부관계만족도, 모관계만족도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본국의 사회화과정을 거친

후 한국에 입국하여 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국내 입국 전 어머니의 재혼으로 인한 이별로 심한 불안을 경험하고, 부모와 소원했던 애착 유대관계가 한국에 와서도 원만히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낯선 한국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물질적, 정서적 지원이 사실상 부재함에 따라 부정적인 심리 및 정서 상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8,24]. 즉 가족 역기능에 대한 지각이 우울을 유의미하게 예측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가족과의 관계는 우울과 연계된다.

이에 대해 양미진 외[3]도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입국 초기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낸 후 함께 지내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문화 및 생활습관의 차이를 느끼는 등 부모자녀 간의 갈등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 외의 다른 연구[12,25]에서는 양부와의 문화적 차이, 세대차이로 인한 갈등 등의 부정적인 경험이 우울감, 무력감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한국인 새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가족자원으로 새아버지의 정서적 지지는 한국사회 적응의 역할을 하며[4], 아버지와의 긍정적 관계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상태에 어머니와의 긍정적 관계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9]. 오승환 외[12]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와의 관계만족도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중도입국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아버지와의 관계만족도는 반대로 나타났다.

2.3.2 학교요인과 우울: 학교공부 어려움, 학교폭력경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학습부진, 학교부적응, 중도탈락 등의 어려움을 겪으며 또래들로부터 따돌림과 폭력의 대상이 된다. 전경숙[26]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 중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이나 차별, 따돌림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은 15.7%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엄마나 아빠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36%, ‘특별한 이유 없이’가 26%로 보고되어 외국인이라는 혹은 이주민이라는 것만으로 대인관계에 있어 갈등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따돌림은 외로움과 우울로 연결되어 한국 적응을 어렵게 한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일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 보다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더 짧기 때문에 학업능력과 학

교생활 적응에서 차이를 경험한다. 한국에서 학습에 대한 기본을 다지고 상급학년으로 진학하는 경우 보다 기본적인 학습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로 학업에 임하는 경우가 많아 학업의 어려움, 진로선택의 어려움을 호소한다[3].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연령이 어릴수록 재학률이 높고 입국시 나이가 많을수록 학교에 적응하는 시간이 더 오래 필요하다[6]. 특히 언어수준이 낮을 경우 놀림이나 따돌림의 대상이 된다.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학교폭력경험은 우울을 증가시키는 요인[27]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도입국 청소년에 관한 오승환 외[12] 연구에서는 학교폭력경험이 많을수록 우울을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나 보다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2.3.3 다문화요인과 우울: 다문화가족정체성인식, 한국어수준, 사회적 차별경험

중도입국 청소년은 어린이와 어른 사이, 하나의 국가와 다른 국가 사이의 이중적 경계영역에 위치해 있다. 이들은 자신의 삶에서 일차적 근거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이 해체되고, 이질적인 민족 출신들로 재결합되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어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28].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등 생물학적 소속감과 물리적 소속감, 심리적 소속감과 사회적 소속감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을 겪는다[2]. 석희정 외[25]는 중도입국 청소년들 상당수가 모국에서의 정체성과 경험을 무시 또는 박탈당한 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갈 것을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이들은 가족생활 적응과 상황을 ‘자신의 근거를 박탈당하고 유예인으로 살기’로 규정한다고 보았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한국어를 전혀 배워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입국하여 가장 먼저 겪는 어려움을 언어문제로 꼽았다. 이에 대해 한은진[29]은 한국어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말하고 듣는 능력은 비교적 빠른 발달이 일어나는 반면, 읽고 쓰는 능력은 더디게 발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에서 활용되는 학습언어수준은 매우 낮으며, 이로 인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 다니기를 포기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30]. 한국어 부족은 스스로 숙제나 준비물을 챙기는 데 한계가 있

음을 느끼면서 소극적 이 되며, 사회적 편견을 인식함으로써 소외감, 고립감, 우울 등을 경험한다[5].

차별은 성, 인종, 외모 등 자신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것으로 사회적 폭력의 한 유형이다[31]. 차별은 해당 사회에 거주하는 개인과 집단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지만 사회적 약자나 소수집단의 구성원일수록 집단 간의 편견과 차별을 민감하게 인식할 수 있다. 이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차별의 수준과 영향력 모두 중요함을 의미한다. Shackford[43]는 오히려 다문화가정 혹은 이중인종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들의 가족을 불안정하고 병리적으로 바라보는 외부인들의 시선과 편견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오승환 외 재인용)[12]. 차별경험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문화가족 아동 및 청소년이 경험하는 차별이 아동의 발달 저하 또는 적응의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김혜미 외[33]의 연구에서도 차별받은 경험이 많다고 인식할수록 우울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승환 외[12]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차별경험 인식정도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우울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만9-24세 청소년자녀 조사를 활용하였다. 가중치를 적용한 청소년 표본은 82,746명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중도입국 학교청소년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추출되었다. 먼저 중도입국의 기준으로, 설문문항에서 ‘한국보다 외국에 더 오래 거주한 청소년’을 선정한 후,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추출하였다. 이어서 이들의 실제 입국년도와 현재의 나이를 매칭한 결과, 국내거주 기간이 더 긴 청소년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조사년도인 2015년 입국자를 제외하고 2011년-2014년에 입국한 청소년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필터링한 결과 중도입국 학교청소년은 2,262명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나이는 13.7세이었다. 조사대상자의 현황은 Table 3과 같다.

Table 3. Status of survey subjects

divi-s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sum	
	N	%	N	%	N	%	N	%
Boy	251	28.0	322	49.5	231	32.4	804	35.5
Girl	647	72.0	328	50.5	483	67.6	1,458	64.5
sum	898	100.	650	100.	714	100.	2,262	100.
2011'	204	22.7	184	28.4	167	23.4	555	24.5
2012'	293	32.6	148	22.8	112	15.7	553	24.4
2013'	247	27.5	184	28.4	311	43.5	742	32.8
2014'	154	17.1	133	20.5	125	17.5	412	18.2
sum	898	100.	649	100.	715	100.	2,262	100.

중도입국 학교청소년은 남학생 804명, 여학생 1,458명이며 초등학생 898명, 중학생 650명, 고등학생 714명이다. 이들의 입국년도는 2013년이 32.8%로 가장 많았다.

3.2 측정변수

3.2.1 종속변수 : 우울

우울은 단일문항으로 ‘지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꼈습니까?’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4점 척도로 ① 그런 적 없다, ② 가끔 느꼈다, ③ 주로 느꼈다, ④ 매우 자주 느꼈다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함을 의미한다.

3.2.2 독립변수

가. 가족요인 : 부관계만족도, 모관계만족도

부모관계만족도는 각 단일문항으로 ‘부’와 ‘모’와의 관계에 만족하는가?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5점 척도로 ①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②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관계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나. 학교요인 : 학교공부 어려움, 학교폭력경험

· 학교공부 어려움은 단일문항으로 ‘학교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니까?’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5점 척도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공부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 학교폭력경험은 단일문항으로 ‘지난 1년 동안 협박,

욕설, 괴롭힘, 구타 등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가?’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① 있었다, ② 없었다의 유무로 응답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다. 다문화요인 : 다문화가족정체성, 한국어수준, 사회적 차별경험

· 다문화가족정체성은 단일문항으로 ‘부모님 중 한 사람이 외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친구나 선생님 등 주위 사람이 아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5점 척도로 ① 매우 싫다, ② 싫다, ③ 보통이다, ④ 좋다, ⑤ 매우 좋다고 응답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인식을 의미한다.

· 한국어수준은 단일문항으로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하십니까?’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5점 척도로 ① 전혀 못한다, ② 별로 못한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잘한다, ⑤ 매우 잘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사회적 차별경험은 단일문항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차별이나 무시당한 경험이 있었는가?’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사회적 차별경험이 ① 있었다, ② 없었다 유무로 응답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3.3 분석방법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SPSS 18.0을 활용하였으며 성별, 학교폭력경험, 사회적 차별경험은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집단 간 평균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t분석과 ANOVA를,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빈도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교차분석을, 변수간의 관계는 상관분석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분석결과

4.1 사회인구학 배경에 따른 변인 차이

먼저, 비연속변수에 대해 교차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4과 같다. 성별에 따라 학교폭력경험과 사회적 차별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학교폭력경험은 남학생 11.0%, 여학생 11.5%이었으며, 사회적 차별경험은 남학생 16.5%, 여학생 18.7%로 여학생의 비율이 약간 높았다.

Table 4. Differences in School Violence and Social Discrimination

division	School violence experience				Social discrimination experience			
	no		yes		no		yes	
	N	%	N	%	N	%	N	%
Boy	715	89.0	88	11.0	671	83.5	133	16.5
Girl	1290	88.5	168	11.5	1,186	81.3	272	18.7
χ^2	.164				1.575			
Elementary school	725	80.7	173	19.3	683	74.3	231	25.7
middle school	590	90.8	60	9.2	578	89.1	71	10.9
high school	691	96.6	24	3.4	612	85.6	103	14.4
χ^2	104.164**				64.726*			
2011year	542	97.7	13	2.3	458	82.5	97	17.5
2012year	461	83.5	91	16.5	442	80.1	110	19.9
2013year	634	85.4	108	14.6	599	80.7	143	19.3
2014year	369	89.3	44	10.7	481	86.7	55	13.3
χ^2	67.165**				8.463			

* $p<.05$, ** $p<.01$, *** $p<.001$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의 학교폭력경험률은 19.3%로 중학생 보다 2배, 고등학생보다는 5.7배 정도 더 높다($\chi^2=104.164$, $p<.001$). 사회적 차별경험 또한 초등학생이 25.7%로 가장 높은 가운데 중학생 보다 약 2.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64.726$, $p<.001$).

질문문항에 차이는 있으나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연구[34]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학교폭력경험률은 초등학생 14.2%, 중학생 13.3%, 고등학생 12.9%로 중도입국 학교청소년의 경험률이 더 높다.

입국년도에 따라 학교폭력경험률과 사회적 차별경험률은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학교폭력경험: $\chi^2=67.165$, $p<.001$, 사회적 차별경험: $\chi^2=8.463$, $p<.05$). 학교폭력경험률은 2011년 입국 청소년이, 사회적 차별경험은 2014년 입국 청소년이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각 변수들을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부관계만족도($t=5.53$, $p<.001$), 모관계만족도($t=7.02$, $p<.001$)와 우울($t=-11.42$, $p<.001$)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여학생 보다 부모관계만족도를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모관계만족도는 가장 높은 5점에 가까운 4.54점으로 부관계만족도 보다 높다. 이는 재결함으로 새롭게 형성된 가족구성에 대한 만족감으로 추론할 수 있다.

Table 5. Mean difference of variables

division		Gender		School level		
		Boy	Girl	elementary	middle	high
Father Relationship satisfaction	M	4.15	3.85	3.92	3.99	3.95
	SD	1.21	1.23	1.26	1.25	1.17
	t(F)	5.53**		.69		
Mother Relationship satisfaction	M	4.54	4.26	4.18a	4.55c	4.41b
	SD	.85	1.02	1.16	.82	.78
	t(F)	7.02**		29.27***		
School study difficulty	M	3.14	3.06	2.94a	2.81a	3.52b
	SD	1.24	1.27	1.25	1.29	1.12
	t(F)	1.42		68.08***		
Multicultural family Identity	M	3.45	3.48	3.35a	3.55b	3.53b
	SD	.93	.90	.85	.98	.89
	t(F)	-.66		12.67**		
Korean level	M	4.05	4.04	4.22b	3.95a	3.90a
	SD	1.01	.96	.99	1.08	.82
	t(F)	.31		26.17**		
depression	M	1.18	1.43	1.15a	1.39b	1.54c
	SD	.38	.68	.35	.60	.76
	t(F)	-11.42**		95.10**		

p<.01, *p<.001 Scheffe Post Hoc Analysis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우울수준이 더 높았다. 본 연구 대상자의 우울경험률은 28.3%로 남성 17.6%, 여성 34.1%로 나타났다(표 생략). 통상적으로 청소년기 우울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1.5배-3배 정도 더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27], 본 연구의 결과도 여학생이 약 2배 높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학교급에 따라서는 부관계만족도를 제외하고 모든 변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증에서도 다른 집단을 형성하였다. 초등학생은 한국어수준(F=26.17, p<.001)을, 중학생은 모관계만족도(F=29.27, p<.001), 다문화가족정체성(F=12.67, p<.001)을, 고등학생은 학교공부 어려움(F=68.08, p<.001)과 우울(F=95.10, p<.001)을 가장 높게 인식하였다. 학교급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초등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다문화가족정체성을 제외하고는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등학생, 즉 본국에서 산 기간이 더 길수록 한국사회의 적응이 더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입국년도에 따라서는 우울을 제외하고 모든 변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able 6 참고). 부관계만족도는 가장 최근 입국한 집단(2014년)보다 2013년 이전 입국한 집단이 더 높았다(F=17.17, p<.001).

Table 6. Mean difference of variables

division		entry year			
		2011	2012	2013	2014
Father Relationship satisfaction	M	3.94b	4.14b	4.01b	3.58a
	SD	1.36	1.06	1.20	1.23
	t(F)	17.17**			
Mother Relationship satisfaction	M	4.32b	4.45bc	4.52c	3.99a
	SD	1.15	.92	.73	1.04
	t(F)	29.28**			
School study difficulty	M	2.56a	3.18c	3.50d	2.92b
	SD	1.14	1.34	1.11	1.23
	t(F)	68.08**			
Multicultural family Identity	M	3.56b	3.55b	3.39a	3.36a
	SD	1.07	.89	.88	.76
	t(F)	7.25**			
Korean level	M	4.44b	3.82a	3.96a	3.95a
	SD	.68	1.14	.90	1.08
	t(F)	44.56**			
depression	M	1.33	1.30	1.36	1.38
	SD	.57	.50	.67	.60
	t(F)	1.94			

p<.01, *p<.001 Scheffe Post Hoc Analysis

모관계만족도는 2013년 입국한 집단이 가장 높게 인식하였으며(F=29.28, p<.001), 부관계만족도와 동일하게 2014년 입국한 청소년 보다 2013년 이전 입국한 집단의 수준이 더 높았다.

학교공부의 어려움은 년도별로 다른 집단을 형성하였으며 2011년에 입국한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F=68.09, p<.001), 다문화가족정체성(F=7.25, p<.001)과 한국어수준은 2011년 입국 청소년들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F=44.56, p<.001). 우울은 입국년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최근에 입국한 청소년일수록 우울 평균은 더 높았다.

4.2 변수들의 상관관계

변수들과 우울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Table 7과 같다. 전반적으로 상관관계가 높지 않아 변수들간의 관계가 독립적임을 알 수 있다.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관계만족도를 제외하고 모관계만족도, 학교공부어려움, 다문화정체성인식, 한국어수준, 학교폭력경험(d), 사회적 차별경험(d)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관계만족도, 다문화정체성인식, 한국어수준은 증가할수록 우울은 감소하는 부적(-)인 관계가, 학교공부어려움, 학교폭력경험, 사회적 차별경험은 증가할수록 우울도 증가하는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Table 7. Correlations of variables

variables	1	2	3	4	5	6	7	8
Father Relationship	-							
Mother Relationship	.50	-						
School study difficulty	-.18	-.13	-					
Multicultural family Identity	.27	.19	-.06	-				
Korean level	.05	.01	-.51	.10	-			
School violence (d)	.03	.01	.13	-.16	.05	-		
Social discrimination (d)	.05	.12	.10	-.09	-.02	.49	-	
depression	-.01	-.05	.22	-.18	-.15	.09	.13	-

*p<.05, **p<.01, ***p<.001

4.3 중도입국 학교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시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VIF는 1.27-1.86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입국 학교청소년의 학교급별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8과 같다.

4.3.1 중도입국 초등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도입국 초등학생의 경우 부관계만족도($\beta=-.14, p<.001$), 학교공부어려움($\beta=-.08, p<.05$), 학교폭력경험($\beta=.48, p<.001$), 한국어수준($\beta=-.18, p<.001$), 사회적 차별경험($\beta=.15, p<.001$)으로 나타났다. 이 모델의 회귀식은 유의하였으며($F=45.12, p<.001$) 전체 변량의 34.2%를 설명하였다.

초등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학교공부어려움은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가운데 추가분석한 결과, 학교 공부에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우울하지 않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즉 초등학생의 우울은 학교공부어려움과의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할 수 있다.

초등학생의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교폭력경험(d)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도입국 초등학생의 19.3%가 학교폭력을 경험한 것에 비추어볼 때 우울 감소, 학교적응을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Table 8. Depression influencing factors

divis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β	t	β	t	β	t
Control factor	Gender (d)	-.08	-2.52	.31	8.35***	.41	11.67***
	age	.07	2.30*	.15	4.41***	.19	4.81***
	entry year	.04	1.40	-.16	-4.30***	.03	.79
Father Relationship		-.14	-3.69***	.19	4.20***	.01	.30
Mother Relationship		-.05	-1.21	-.07	-1.61	-.08	-1.87
School study difficulty		-.08	-2.13*	.11	2.16	.27	6.59***
School violence (d)		.48	12.35***	.08	2.20	-.20	-5.26***
Multicultural family Identity		.03	.87	-.41	-10.29***	-.04	-1.00
Korean level		-.18	-5.74***	-.15	-2.91**	.30	6.67***
Social discrimination (d)		.15	4.18***	.25	6.30***	.12	2.89*
F		45.12**		31.85**		34.67**	
R ²		.349		.333		.330	
adj-R ²		.342		.322		.321	

*p<.05, **p<.01, ***p<.001

Remark. d)Gender : 0 man, 1 woman / d)School violence experience, Social discrimination experience : 0 no, 1 yes

4.3.2 중도입국 중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도입국 중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관계만족도($\beta=.19, p<.001$), 학교공부어려움($\beta=.11, p<.05$), 학교폭력경험($\beta=.08, p<.05$), 다문화가족정체성($\beta=-.41, p<.001$), 한국어수준($\beta=-.15, p<.001$), 사회적 차별경험($\beta=.25, p<.001$)으로 나타났다. 이 모델식은 유의하였으며($F=31.85, p<.001$) 전체 변량의 32.2%를 설명하였다.

중학생의 경우 부관계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우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분석을 한 결과, 부관계만족도가 가장 높은(5점) 중학생의 경우 우울을 가끔 느끼거나(78명) 자주 느낀다(13명)는 학생이 649명 중 91명으로, 부관계만족도가 가장 낮은(1점) 학생들이 우울을 가끔 느끼거나(0명), 자주 느낀다(7명)는 학생 7명 보다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른 방향성을 보였다. 즉 중도입국 중학생의 부관계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할 수 있다.

중학생의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다문화가족정체성이다. 사춘기의 출발,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이 복합적으로 얽힌 상황이 다문화정체성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중학생의 다문화가족정체성은 다른 집단 평균보다 높았다. 따라서 다문화정체성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4.3.3 중도입국 고등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도입국 고등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교공부어려움($\beta=.27, p<.001$), 학교폭력경험($\beta=-.20, p<.001$), 한국어수준($\beta=.30, p<.001$), 사회적 차별경험($\beta=.12, p<.001$)으로 나타났다. 이 모델식은 유의하였으며 ($F=36.88, p<.001$) 전체 변량의 32.1%의 설명력을 보였다.

고등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독특한 것은 학교폭력을 경험할수록 우울이 낮아지고, 한국어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추가분석한 결과, 학교폭력을 경험한 고등학생 24명은 우울을 느낀 적이 없는 반면, 학교폭력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우울을 자주 느끼거나(35명), 매우 자주 느끼고(28명)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연구가 더 축적되고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으나, 학교폭력경험이 고등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수준이 높은 고등학생의 경우(4-5점) 우울을 자주 느끼거나(35명), 매우 자주 느낀다(28명)고 응답하여 한국어수준과 무관하게 고등학생의 우울은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고등학생의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교공부어려움이다. 이는 본국과의 교과과정의 차이, 언어의 차이 등이 결합되어 학업을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학업중단이 되지 않도록 학업관련 지원과 심리적 완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상과 같이 학교급별 분석 결과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변수(초등학생: 학교공부어려움, 중학생: 부관계만족도, 고등학생: 학교폭력경험, 한국어수준)를 제외하였을 경우, 중도입국 학교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 변수는 사회적 차별경험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급별에 따라 초등학생은 부관계만족도가 중학생의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체성이 우울을 감소하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은 학교공부어려움이 우울을 높이는 위험요인임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활용하

여 중도입국 학교청소년의 학교급별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중도입국 학교청소년 지원방안 모색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중도입국 학교청소년의 우울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학교급별로 비교분석하여 현장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요 연구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경험과 사회적 차별경험은 학교급별, 입국년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학교폭력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경험이 높아졌으며, 사회적 차별은 2014년 입국한 청소년의 경험이 가장 낮았다. 학교폭력은 연령이 어릴수록, 사회적 차별은 한국에 입국한지 최근의 청소년들이 적응에 더 어려움을 겪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족, 학교, 다문화요인에 따른 성별, 학년별, 입국년도에 따라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부모와의 관계만족도가 더 높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경우 한국어수준이 가장 높았고, 중학생은 모와의 관계만족도와 다문화정체성이, 고등학생은 학교공부 어려움을 가장 높게 인식하였다. 이는 초등학생의 언어습득이 가장 빠르고, 중학생의 경우에는 2011년에 입국한 비율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에 비해 높아 모와의 관계형성이나 다문화정체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고등학생은 가장 최근에 입국한 비율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학업적응이 어렵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우울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우울수준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오승환 외[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우울은 사춘기 전후 급격히 증가하다 청소년 후기에 다시 감소한다는 점에서 청소년기는 우울에 취약한 시기이다. 모든 청소년의 우울에 개입해야 하지만 다문화아동은 단일인종 청소년에 비해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들이 더 빈번하다고 보고[35]한 점에 미루어볼 때, 여학생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중도입국 학교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동안 다문화청소년 관련 지원은 한국어와 문화교육에 치중되었다면, 이제는 다문화청소년의 문제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둘째, 중도입국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요인, 학교요인, 다문화요인은 학년별에 따라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가족요인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중학생을 제외하면, 부관계만족도는 초등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오승환 외[12]의 부모관계만족도, 조은희 외[11]의 부관계만족도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우울을 낮춘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즉 중도입국 청소년은 정체감 위기와 함께 우울을 경험할 수 있는데 부모와의 관계만족도는 우울을 낮추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입국의 동기가 부모와 함께 살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60.6%[36]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모와의 애착관계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들의 가족구성이 주로 친모의 재혼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입국 후 사회적 관계와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어머니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부는 중도입국 초등학생이 가장 먼저 만나는 낯선 존재로 생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가족과의 응집력을 높이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의사소통, 가족캠프 등의 프로그램이 다문화관련기관 등을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요인은 중도입국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에 차이가 있었으나, 중학생의 경우 학교공부어려움과 학교폭력경험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았다. 중도입국 학교청소년은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하여 학업성취도가 낮고 이로 인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수학이나 사회과목 등 본국에서 학습한 경험이 없는 과목이나 높은 이해수준을 필요로 하는 과목의 경우 수업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37].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청소년 학업중단사유 중 '학업의 어려움'은 18.0%를 차지하였으며 '학교생활 및 문화가 달라서' 18.3% 다음으로 높았다. 학업중단은 미래 사회적 비용 증가와 연계된다. 이에 학습 부진의 원인 진단과 전문자원봉사인력의 1:1 멘토링을 내실화함으로써 체계적인 교육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경험이 우울을 높인다는 것은 최옥주[2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학교폭력실태조사[38]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교폭력률은 2017년 0.8%(2015년 0.9%)인 반면, 본 연구의 학교폭력경험률은 11.3%로 중도입국 학교청소년이 14배 정도 높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중도입국이 불리함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청소년들의 태도와 의식,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규

교육과정 내의 다문화교육,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재량활동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학교폭력경험이 학교부적응과 학업중단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피해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심리정서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다문화요인은 일반청소년이 경험할 수 없는 중도입국 청소년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요인으로 본 연구가 주목하는 변수이기도 하다. 다문화가족정체성은 중학생의 우울에만 영향을 미쳤다. 이는 다른 연령에 비해 정서적으로 가장 민감하고 사회적 소속감의 욕구도 크다는 점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더 경험하기 쉽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경우 심리적인 안정감으로 작용되어 적응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대상의 다문화가족정체성은 중간 이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없어 이중정체성에 대한 유연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이 자신의 가정과 문화에 관해 부끄러워하거나 열등하다고 인식할 경우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며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39]. 따라서 다문화가족이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한국어 능력은 우울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차이가 있으나 고등학생의 경우 한국어의 어려움이 많을수록 우울이 증가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최혜정[40]은 중도입국 청소년이 한국어수준이 낮을 경우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점과, 최운선[41]은 한국어수준은 학업수행이나 친구관계 및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연구들과 상반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본국에서 성장한 기간이 길수록 언어의 장벽이 높아 우울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고등학생이 학업에 더 어려움을 느끼는 점과 맞물린다. 즉 한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다문화청소년 보다 중도에 입국한 청소년들이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더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학교 교육과정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수에 불과한 학교 내 KSL프로그램을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개선해 가야 할 것이다.

사회적 차별경험은 초·중·고학생 모두 공통적으로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문화가정 배경으로 인해 겪는 차별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발달 및 적응에 영

향을 미친다는 유비 외[34]의 선행연구들[12,33,42]의 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다문화청소년이 겪는 차별경험은 우울과 불안을 예측하는 위험요인[33]으로 밝힌 연구와 일치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의 차별문제를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차별을 경험할 경우 학교, 기관에 안전하게 알리고 상담여건의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다문화 수용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되도록 인식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우울수준을 학교급별로 비교하였다.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이어서 비교 고찰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탐색적 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후 더 많은 조사 연구를 통해 중도입국 학교청소년에 대한 후속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중도입국 학교청소년의 우울에 이르는 경로분석과 함께 중도입국 학교 밖 청소년과의 비교를 제안한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press release. 2017.11.14.
- [2] M. S. Jang & Y. S. Song. (2012). *A Study on the Status of Migrant Youths in Seoul and Supporting Plans*.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 [3] M. J. Yang, H. Y. Gao, Y. H. Kim & D. H. Lee. (2012). A Qualitative Research on Immigration Experiences and Acculturation Proces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with Immigrant Background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0(2), 87-113.
- [4] Y. U. Myung. (2013). Descriptive Qualitative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Adaptation of Rejoined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42, 39-82.
- [5] B. C. Lee & D. Y. Song. (2011). A Qualitative Study on the School Adapt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Youth from Accompanied Entr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3(4), 131-154.
- [6] K. M. Yang & H. Jo. (2011). *A Study on the Status of Migrant Youths*, Rainbow youth center,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7] S. B. Oh & D. H. Seo. (2012). An investigation into the condition of Immigrant youth's career consciousnes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social support, *Secondary Education Institute*, 60(2), 131-154.
- [8] D. H. Jwa. (2014). A Research on the Psycho-social Adaptation Characteristics of Immigrant Youths based on Nationality and Acculturation Typ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1), 97-126.
- [9] S. Y. Bai. (2016). *A Study on the Status of Migrant Youths and Supporting Their Self-relianc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10] M. K. Kwon & S. Y. Lee. (2017). Qualitative Research about Motivation for Studying Korean Language and Learning Achievement of Multicultural Family Youth from Accompanied Entry, *The Academy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110, 147-181.
- [11] E. H. Cho & S. B. Oh. (2017).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the Korean Language Competence and Emotion of Immigrant Youth,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23(5), 499-516.
- [12] S. H. Oh & H. S. Jwa. (2015). The factors affecting on depress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adolescents and immigrant adolescent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32, 385-412.
- [13] M. Y. Kye & Y. J. Hye. (2012). The Exploratory Study of Psycho-Social Adjustment of Immigrant Youth in Korea,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11), 195-224.
- [14] S. J. Kim. (2015). A Study on the Influence of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to Multicultural Families' Adolescents on their Characteristics, *The Journal of Asiatic Studies*, 58(3), 6-41.
- [15] Y. J. Shin. (2017). *The effect of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on depression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 identity*,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 [16] B. R. Ryu & S. B. Oh. (2012). An Analysis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and adaptation of immigrant youth,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5, 29-50.
- [17] Ministry of Education. (2017). Korean Educational Statistics Service. <http://kess.chedi.re.kr/inde>
- [18] H. O. Shin & K. M. Yang. (2014). *A Study on the Status of Migrant Youths*, Rainbow youth center.
- [19] H. Z. Reinherz, R. M. Giaconia, A. M. C. Hauf, M. S. Wasseman & A. D. Paradis. (2000). General and specific childhood risk factors for depression and drug disorders by early adulthood,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9(2), 223-231.

- [20] S. C. Han. (2012). Analysis of Influence Factors on Resilience of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y,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9(4), 239-258.
- [21] N. M. Davis. (2005).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School Nursing*, 21(6), 311-317.
- [22] Y. H. Jeon. (2012). Relationships of Self-Concept and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 in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19(2), 277-293.
- [23] J. H. Yu & S. Y. Hwang. (2016).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Among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A Comparison with Those from General Families, *Social Work Practice & Research*, 13(1), 115-146.
- [24] S. J. Lee & H. J. Kim. (2016). A Phenomenological Study on Family Experiences of Immigrant Youth Who Were Born and Raised in Their Native Countri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3(5), 205-235.
- [25] H. J. Seok & C. K. Ha. (2015). The Qualitative Study about the Family Living Adaptation of Rejoined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31, 1-35.
- [26] K. S. Jeon. (2008). A Comparative Study on the Living Conditions of Teenagers from Multicultural Family and Normal Family in Gyeonggi Prefecture : Based on School Life and Family Life,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6(1), 167-185.
- [27] O. J. Choi. (2017). *The Effects of School Violence and Discriminatory Experience on Depression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Parental Relation and Coping Strateg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 [28] D. H. Choi. (2014). The Case Study on Immigrated Teenager's Right Outside of the School, *Multicultural Studies*, 3(2), 133-165.
- [29] E. J. Hand. (2012). *Analysis of patterns and processes of cultural adaptation of immigrated youth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 Focusing on their experience*, Department of Family Welfare The Graduate School of Wonkwang University.
- [30] N. J. Lee & M. Kim. (2017). A narrative inquiry on the school life experience of the immigrated youth of the Koryosaram,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10, 141-170.
- [31] K. Sanders-Phillips. (2009). Racial discrimination: A continuum of violence exposure for children of color,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12(2), 174-195.
- [32] B. Ryou & K. H. Kim. (2015). The Factors Affecting Vocational Identity : Comparing Korean Immigrant Adolescents and Non-Immigrant Adolescents(Korean parents famil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7, 5-29.
- [33] H. M. Kim, S. J. Won & S. H. Choi. (2011).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2(1), 117-149.
- [34] Y. J. Kim & S. H. Yoo. (2016). *Survey on human rights of Korean children and youth*.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35] Y. Choi, T. W. Harachi, M. R. Gillmore & R. F. Catalano. (2006). Are multiracial adolescents at greater risk? Comparisons of rates, patterns, and correlates of substance use and violence between monoracial and multiracial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6(1), 86-97.
- [36] D. H. Seo, E. S. Kim, E. H. Jo & K. H. Lim. (2015). *Migration background Study on career development and employment support for adolescent's social advancement*, Rainbow youth center.
- [37] M. A. Kim, J. H. Yi, M. Y. Ra & K. H. Kim. (2014). Through the Eyes of the Service Providers: Challenges for School Adjustments among Immigrant Adolescen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9), 147-175.
- [38] Ministry of Education. Press release./2017.12.6. <http://www.moe.go.kr>
- [39] J. W. Park. (2015). *A Study on Cultural Identity Formation Process in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of Chung Ang University.
- [40] H. J. Choi. (2014). A Study of Children of Bilingual Experience of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27, 83-107.
- [41] W. S. Choi. (2012). Personal Characteristics, Ethnic Identity,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Self-Esteem, and Problem Behavior of Korean-Japanese Multicultural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17(2), 49-71.
- [42] H. M. Prelow, S. Danoff Burg, R. R. Swenson & D. Pulgiano. (2004). The impact of ecological risk and perceived discrimination on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of African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 youth,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2(4), 375-389.

- [43] K. Shackford. (1984). Interracial children: Growing up healthy in an unhealthy society, *Interracial books for children bulletin*, 15, 4-6.

최 은 희(Choi, Eun Hee) [정회원]



- 2010년 2월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문학박사)
- 2015년 7월 ~ 현재 :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 관심분야 : 청소년의 정신건강, 폭력

▪ E-Mail : ehchoi@cri.re.kr

김 경 은(Kim, Kyung Eun) [정회원]



- 2011년 8월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문학박사)
- 2017년 7월 : 건신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2018년 8월 : 드림청소년발달연구소 소장

▪ 관심분야 : 청소년의 정신건강
▪ E-Mail : martyress@naver.com